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 (오후 11시-오전 4시)

# 현대불교

인도 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깎고 있습니다.  
 인도불교계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인도돕기)



◇북한산 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동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관계자 20여명이 9월 1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관통노선 백지화'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 정부 '뚝갸다' 교계 '분노'

천성·금정산 기준노선대로 공사  
 19일 국정현안회의  
 북한산 관동도로 공론조사후 결정

정부가 경부고속철 천성산·금정산 고속철 공사를 당초 정부안대로 강행한다. 또 북한산 관동도로로 기존 노선 강행방침도 시사했다. 불교계 및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14면  
 9월 1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가 끝난 후 최정호 건설교통부 장관과 최경수 국무총리실 사회수석조정관은 공식 브리핑에서 "불교계에

제외했던 공론조사를 통해 북한산 관동도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천성산·금정산 고속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노선이 최적인 노선임을 확인했으며, 공사 재개시 자연환경 및 사찰수행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존노선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산 문제와 관련 불교계는 지난 7월 공론조사를 통해 북한산 문

제를 해결하려다 불교계 및 환경단체의 반발로 취소했던 정부가 다시 공론조사를 들고 나온 것은 결국 정부안대로 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순발기라는 점에서 사실상 기존노선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대변인 현고 스님(기회실장)은 "종단의 공식입장은 면밀히 검토를 거친 뒤 나오게 될 것"이라면서도 "노선재검

토위 합의내용에는 공론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며, 공론조사가 정부안대로 추진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상당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정부 발표 직후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불교환경연대 조직실장 법현 스님은 "공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기존노선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며 "불교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공동대책위는 "정부가 노선재검토위 보고서도 발간하지 않은 채 노선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불교계와의 합의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관련 단체와의 조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선원수좌회(회장 지환, 동화사 기초선원장)도 "공약대로 북한산 관동도로를 백지화하고 노선을 변경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봉영·남동우 기자

## 국립공원 입장료·문화재 관람료 당분간 인상하지 않기로

조계종 관람료위 결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진해 온 국립공원 입장료 인상이 무산됐다. 조계종 관람료위원회의는 9월 17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회의를 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조계종에 요청했던 공원 입장료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했다. 또 사찰이 징수해오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도 당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관람료위원회 위원장 명섭스님(회암사 주지)은 "들다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태풍 피해로 국가적 재난을 당하고 있음을 감안해 입장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인력 3면

조계종 첫 영산재 재현

28일 조계사에서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영산재를 재현한다. 조계종 문화부는 9월 17일 기자회견에서 28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조계사에서 영산재 재현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영산재는 동주, 동희 스님을 여장(魚丈, 영산재를 시연하는 최고 스님)으로 40여 명의 조계종 스님만으로 재현된다.

오유진 기자 e.exist@buddhapia.com

해서는 사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람료 인상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몇 년간 입장객 감소에 따라 입장료 수입이 줄면서 적자폭이 커지자 지난 8월 공원 입장료 인상 방침을 밝히고 조계종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조계종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공원 입장료 인상시 조계종과 공단이 서로 협의토록 돼 있는 1997년 합의에 의한 것이다. 한편 관람료사찰 전체회의에서는 명섭스님이 관람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기가 만료된 13명의 관람료위원이 새로 선출됐다.  
 한명우 기자 mwah@buddhapia.com

### 수재민들 고통 덜어주세요

조계종·불교계 언론사들 모금운동

태풍 '매미'는 너무나도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수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자비심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불교 조계종과 본지를 비롯한 불교계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수재민 돕기 성금모금 캠페인을 벌입니다.  
 수재민들이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부채질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불자와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대한불교신문사·법보신문사·불교신문사·주간불교신문사·현대불교신문사
- ▶ 입금액좌: 국민은행 023-25-0011-991(계)불교중앙교원, 농협 063-01-239894(계)불교중앙교원
- ※성금 접수처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02-735-5864)

### 감동의 신행체험수기 공모

교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가슴속에만 폭풍이 일어났던 감동같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귀중한 체험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큰 지광이 될 것입니다. 이번부터는 신행수기 당선자들의 모인 신수회 회장님이 신설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 주제: 일심속의 신행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매)
- 당선작 발표: 2004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담당자 e-mail: thatiswhy@buddhapia.com
- 접수 마감: 12월 13일

200자 원고지 30매... 12월 13일 마감

● 시상내역

- ▷ 대상(유망상)
- ▷ 우수상(편사 사장상)
- ▷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 현대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 동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회 이사장상 - 신수회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상금, 부상을 각각 수여하며 응모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

달라이 라마와 석학 26명의 '마음담구' 8~9면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한 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경남 동부: (055)353-1196 제천: (043)644-4366 경남 서부: (055)547-3469

학진의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국내 저명 학술지로 인정돼, 교수 평가 시에 해당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높은 점수를 얻게 된다. 따라서 논문을 신

년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는 총 263개, 그 가운데 인문학 분야는 87개다. 인문학 전체에 비해 선정된 불교학 학술지의 수는 적지만, 98년 학진의 학술지 평가 이후 불

에 나머지 20여개의 불교계 학회는 학회만의 정체성과 학술적 수준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이제는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이상, 등재학술지로 확정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미 <불교학연구>와 <보조사상>은 향후 2년간 학술지를 1년에 4번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을 시작으로 불교학 연구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오유진(취재1부 기자)

불교 學術誌의 위상

교학 학술지가 단 한 건도 선정되지 않아 우려와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높았던 불교학계는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가득하다. 또 4개의 학회 의

고자 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학문적 수준이 담보된 논문을 실을 기회가 더 커져, 등재학술지로 선정됐을 때의 이득은 크다.  
 지난 9월 학진이 발표한 '2003

학진의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국내 저명 학술지로 인정돼, 교수 평가 시에 해당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높은 점수를 얻게 된다. 따라서 논문을 신

년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는 총 263개, 그 가운데 인문학 분야는 87개다. 인문학 전체에 비해 선정된 불교학 학술지의 수는 적지만, 98년 학진의 학술지 평가 이후 불

에 나머지 20여개의 불교계 학회는 학회만의 정체성과 학술적 수준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이제는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이상, 등재학술지로 확정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미 <불교학연구>와 <보조사상>은 향후 2년간 학술지를 1년에 4번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을 시작으로 불교학 연구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오유진(취재1부 기자)

에스콤을 만나는 순간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에스콤은 무인경비 시스템을 통해 가정의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또한 평안한 삶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풍요와 희망이 가득한 세상! 지금 에스콤으로 오십시오!

에스콤과 함께할 불자가족(총판 및 대리점)을 찾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란?

가계장치를 이용하여 일정한 경비구역의 경비업무를 경비원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장치로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러한 무인 경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지속적으로 그 기능이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CCTV카메라를 이용한 경비 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아직은 녹화 감시 기능만을 수행할 뿐이며 그 녹화도 아직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하고 있는 곳이 많고 디지털화 되어 있어 대부분 건물 경비에 사용되며 일반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장치는 거리가 있었다.

이번 S-COM에서 개발한 제품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간단히 설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어디서나 설치된 장소로 본인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도난 및 가스, 화재 방지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정 및 점포에서 든든한 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권리 지사 모집

▶ 모집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청주, 전주, 원주, 대전, 인천, 경기 외 지역  
 ▶ 모집자격: 금융거래 하지 않는 분으로 순 자기 자본 2천만 이상 가능자

가정용 CC카메라 도난 경보기 S-COM (에스콤)  
 S-COM을 설치하시면, 밖에서도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언제든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

“에스콤이란?”

보안 및 경비를 필요로 하는 사찰, 사무실, 고급주택, 상점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침입자의 영상을 잡아내어 사용자의 PC 또는 PDA 등으로 실시간 동영상을 보내주는 컴퓨터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내주기도 하며 사용자가 지정하는 8곳에 침입사실을 전화 또는 메시지로 통보하여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나, 가스누출이나 화재발생시 경보실과 관리실, 사용자 휴대폰 등 사용자가 지정하는 8곳으로 자동 연락해드립니다.

들, 도둑이 들어오면 사용자가 지정한 8곳으로 통보할 뿐만 아니라 본사 상황실에서 관별하여 인근 파출소나 112에 출동을 신고합니다.

셋, 아이들이 집에서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외부에서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 지체 부자유자나 노모노님들에게는 비상 목걸이를 드리 워급한 상황에서 외부로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사 상황실에서 관별하여 119에 출동 신고합니다.

“제품의 구성”

경보동, 무인경비 관리자, 무선 수신기, 무선도어 감지기, 리모콘, 카메라, CD, S-COM 컴퓨터

● 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8-5호 진성프라자 404호 ● 문의전화: 1544-1088 (전국)